

<2017 인천광역시 합격 수기 >

11학번 주현아

저는 11학번으로 3수만에 임용에 합격하였습니다. 그러나 초수에는 임용에 뜻이 없었고 시험 준비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로 시험을 봤기 때문에 제가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고 시험을 봤던 것은 재수 때부터입니다. 재수 때 전라북도에 응시하여 1차를 합격하였지만 2차에서 최종 탈락하여 다시 또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고 2017 인천광역시에 응시하여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학부 때도 특별히 눈에 띄는 정도로 성적이 좋았던 것도 아니었고 합격한 선배들을 보며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저도 합격한 것을 보고 많은 후배 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꼭 합격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족하지만 저의 공부 방법이나 방향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임용에 대해 알기

저는 초수 때 임용이라는 시험의 방향이나 어떤 것을 공부해야하는지도 모르고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혹시나 저처럼 아직 임용에 대해 기본적인 사항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험: 1차-논술형 시험(전공, 특수교육과정(기본교육과정), 초등교육과정(공통교육과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2차-수업시연, 지도안 작성, 면접(지도안 작성이 빠진 시도도 있습니다.)

전공- 합격 수기를 보다보면 **전공 각론서**로 공부했다는 말이 나올 것입니다. 여기서 **전공 각론서**라는 것은 학부 때 강의시간에 공부하셨던 지체장애 학생 교육(박은혜)과 같은 전공과 관련된 서적들을 말합니다. 임용 시험을 위해 공부해야할 전공 영역은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건강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통합교육, 행동지원, 공학, 평가로 크게 13영역이 있습니다.

특수교육과정- 특수교육과정은 **기본교육과정** 이라고 하며 **총론**과 **각론**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총론**은 기본교육과정 전반적인 운영과 시행에 관련된 부분과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음악, 미술, 체육, 실과, 안전한 생활(1,2학년), 통합교과(1,2학년) 공통국어, 공통체육, 공통영어의 운영 등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각론**은 실제 국어, 미술 등의 수업에서 배우게 되는 내용들을 말합니다.(예를 들면 국어시간에 의성어, 의태어를 배우는 것, 미술시간에 서예에 대해 배우는 것) 그러나 기본교육과정 각론은 초등교육과정(공통교육과정) 각론을 꼼꼼히 공부하시면 거의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따로 공부할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초등교육과정- **공통교육과정**이라고도 하며 **총론**과 **각론**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총론**은 공통교육과정 전반적인 운영과 시행에 관련된 내용과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음악, 미술, 체육, 실과, 도덕, 안전한 생활(1,2학년), 통합교과(1,2학년)의 운영등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각론**은 실제 교과의 내용들로 우리가 초등학교때 수업시간에 배웠던 내용들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예를 들면 과학시간에 산성과 염기성에 대해서 배운 것, 실과시간에 바느질 방법 등)

※2017년에는 1,2학년만 2015 교육과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1,2학년 총론과 각론을 2011과 2015 둘 다 봐야했고 3,4학년은 2012개정 교육과정으로 공부했습니다. 아마 2018년 임용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2018년에는 3,4학년까지 2015교육과정이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다. 따라서 1,2학년은 물론 3,4학년까지 2012와 2015교육과정으로 공부하셔야겠죠?

◎불합격의 원인을 냉정하게 파악하기

다시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나에게 부족한 점이 무엇이고 불합격한 이유에 대해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먼저 2016년 임용에 전라북도에 응시하여 1차를 합격하였지만 컷보다 1점 높은 점수로 합격하여 2차에서 뒤집기에는 역부족 이었습니다.

1차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한 이유를 파악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①시간 분배를 잘하자.

일단 시간이 너무 부족하여 7번,8번 문제는 읽어보지도 못하고 답안지를 제출하였습니다. 문제를 한번 풀고 나니까 시간이 부족하여 검토를 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빨리 푸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②편식하여 공부하지말자.(초과정을 소홀히 공부하지 말자.)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전공과 특과정은 열심히 하지만 초과정 공부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또한 초과정을 공부할 시간에 전공과 특과정을 더 공부하여 문제를 더 맞추자라는 생각으로 초과정 공부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점차 임용의 추세가 교육과정에 대한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초과정은 조금만 공부하면 쉽게 문제를 풀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오히려 고득점을 받기위한 보너스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2차에서 뒤집지 못한 이유를 생각해 보았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자신감 이었습니다. 컷에서 겨우 1점이 더 있는데 내가 될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2차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장에서 자신감 없는 모습으로 시험에 임했기 때문에 합격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2017년도 임용시험부터 2차에 대한 변별력을 크게 두겠다는 평가원의 발표에 따라 1차의 점수가 최종합격을 무조건 결정짓는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즉, 컷 점수여도 2차에서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 공부를 하였던 친한 오빠가 2017년도 충북에서 1차가 컷트라인 점수였지만 최종합격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1차 점수와 별개로 2차 시험의 중요성이 높아졌습니다.

◎전공 공부방법

저는 전공 내용을 공부할 때 각론서를 기본으로 공부하였습니다. 월별로 제가 했던 공부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2월

-1,2월은 사실 공부양이 많지 않았습니다. 1,2월에는 기본강의를 듣는 정도로 전공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다졌습니다.

♣3,4,5월

①기출분석을 시작하였습니다. 동시에 기출분석 스티디도 시작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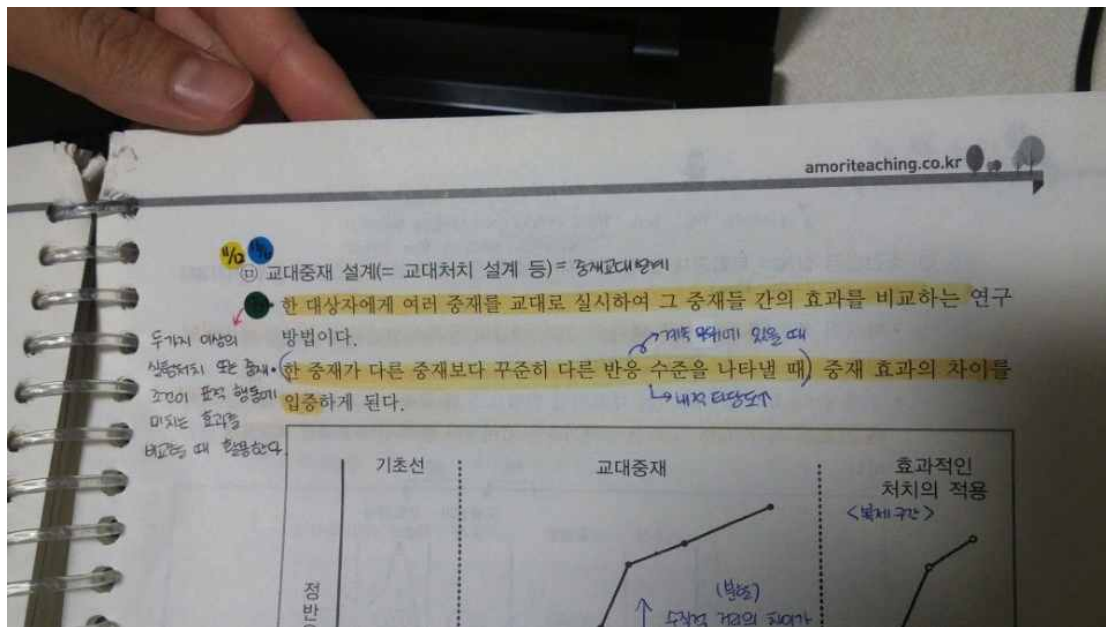
2016년 대비 때는 패스에 있는 기본파자료를 활용하여 기출분석을 하였지만 이번에는 2009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출문제를 프린트하여 자른 다음 붙여서 기출분석을 하였습니다. 기출 분석을 할 때 답의 근거는 각론서에서 답의 근거를 찾아서 적어놓고 그 근거를 토대로 저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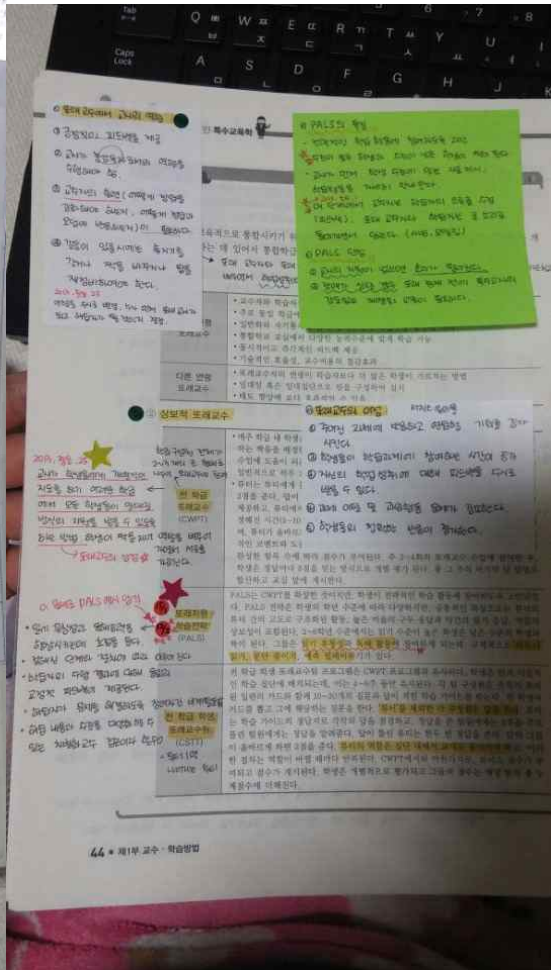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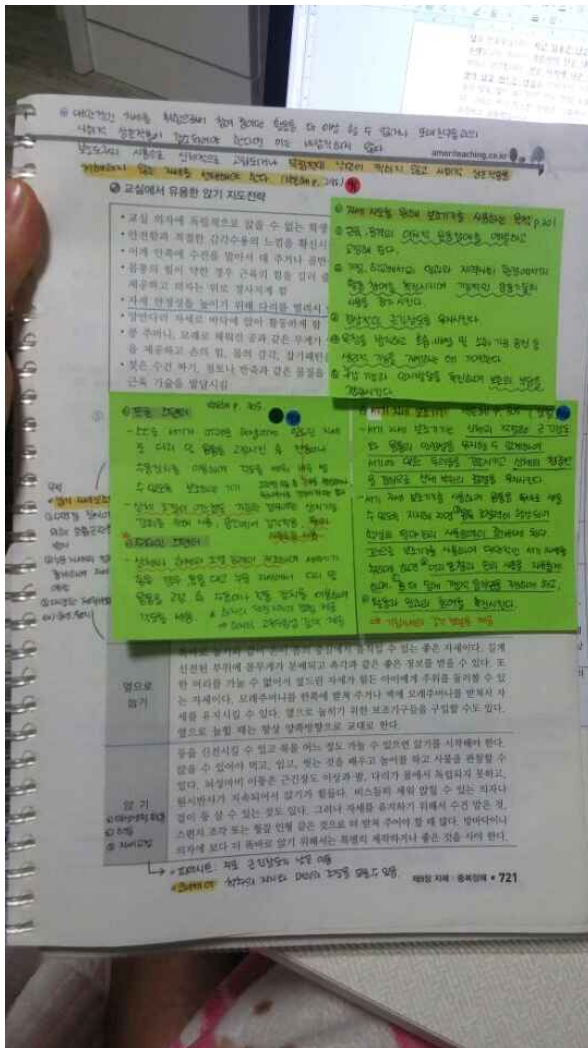
답을 만들었습니다. 최근 임용은 단순히 전공지식을 외워서 쓸 수 있는 문제는 지양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각론서의 전공 내용을 문제에 적용하여 스스로 답을 써보는 연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공 서적에 나온 내용을 토대로 문제의 상황과 조건에 맞게 적용하여 저만의 답을 만드는 연습을 이때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보통 시중에 출판된 기출문제집인 패스 등의 답을 많이 보시는데 저는 정말 모를 경우를 빼놓고는 기출문제집을 거의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성한 정답은 기출분석 스테디를 통해 스테디원과 공유하며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고 보충했습니다.

기출분석 스테디는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한 영역씩 기출풀이를 했습니다. 돌아가면서 한 문제씩 풀이를 하고 부족한 부분이나 보충하고 싶은 부분을 서로 추가했습니다. 저는 기출분석 스테디를 할 때 개인적으로 가능하다면 스테디원을 각자 다른 강사의 강의를 듣는 사람들로 구성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각 강의마다 답의 근거나 풀이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답의 근거와 답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②이론서를 한권 정해서 이론서에 단권화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보았던 이론서 한권에 기출부분을 표시하고 기출 문장을 적었습니다. 또한 이론서에 빠진 전공 각론서의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단권화는 서브노트와 다릅니다. 말 그대로 단권화, 즉 한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완전 처음부터 틀을 만들어서 단권화를 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이론서를 선택하여 단권화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간을 훨씬 줄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단권화는 10월까지도 빠진 부분이 있거나 보충할 부분이 있으면 계속해서 추가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스티커가 붙여져 있고 화살표로 연결되어 적어진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스티커로 기출이 나온 연도를 표시하고 화살표로 연결하여 그 기출에 나온 관련 내용을 적은 것입니다. 보통 객관식 이였을 때 기출문제는 오답이외의 보기를 적어놓거나 서술형 문제에서는 대화에서의 내용 등을 적었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진은 이론서에 각론내용을 추가해는 것입니다. 이때 참고한 각론서의 출처를 옆에 같이 적어두었습니다.





③각론서를 충분히, 꼼꼼히 보았습니다.

각론서를 가장 꼼꼼히 그리고 많이 볼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전공 각론서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다 봐야하는지 어떻게 봐야하는지 막막하실 겁니다. 저는 **기출이 된 부분을 위주로 보았습니다.** 기출분석을 하면서 답의 근거를 각론서에서 찾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각론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때! 딱 그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출이 된 부분의 바로 앞, 뒤는 꼼꼼히 보고 그 chapter는 충분히 보았습니다.** 기출의 범위가 점차 확장되기 때문에 출제된 부분에서 조금 더 확장하여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가능하면 **한 영역당 각론서를 2권정도 보려고 했습니다.** 기출이 된 부분을 첫 번째 각론서에서 보고 그와 똑같은 내용이 다른 각론서에는 어떻게 나와있는지 찾아보며 보충하고 비교했습니다.

♣6,7,8월

①기출분석 두 번째를 시작했습니다.

기출분석은 한 바퀴만 돌린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돌릴 수 있는 한 최대한 봐야하는 것이 기출입니다. 두 번째 기출분석을 시작할 때는 먼저 첫 번째 기출분석을 하면서 놓쳤던 부분이나 더 추가해야 할 부분을 다른 색깔 펜으로 옆에 추가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

기출분석을 하다보면 분명히 처음 기출분석 할 때 적었던 답 중에 마음에 들지 않거나 이상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더 정교하게 다듬고 키워드를 넣어서 답을 다시 한번 수정했습니다. 자신의 답을 계속해서 수정하고 고쳐나가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②각론서를 틈틈이 꾸준히 보았습니다.

이때도 두 번째 기출을 돌리면서 각론서를 계속 보았습니다. 그러나 처음 각론서를 봤을 때와는 달리 내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나 정리가 더 필요할 것 같은 부분만 뽑아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각론을 보는 것이지만 이때도 새로운 내용이 보여서 이론서에 계속해서 추가했었습니다.

♣9월

①기출을 실제 원본으로 뽑아서 풀었습니다.

이전까지는 기출을 영역별로 나눠져 있는 상태로 일주일에 한 영역씩 분석을 했지만 9월에는 연도별로 뽑아서 쪽 풀어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예를들면 오늘을 2011년 유치원, 내일을 2011년 초등, 모레는 2011년 중등 그리고 다음날은 2012년 유치원..이런식으로 하루에 한 년도의 유초중을 나누어 풀었습니다. 실제 시험의 감을 익히기 위해서였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문제가 영역별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애영역을 넘나들며 머리가 빨리 회전할 수 있는 연습을 했습니다. 신기한 것은 앞에서 기출분석을 두 번이나 했지만 원문으로 기출을 풀다보면 이때도 못 푸는 문제가 있습니다. 좌절하지 말고 그런 부분은 앞서 해놓은 기출을 찾아서 다시 보고, 단권화한 곳에도 표시를 해놓고 절대 틀리지 않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②논술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논술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논술연습의 가장 좋은 것은 기출을 써보는 것입니다. 친구들과 스터디를 만들어서 일주일에 2편 정도를 써보며 서로 피드백 해주었습니다. 논술을 쓰다보면 자신만의 서론과 결론은 거의 만들어지기 때문에 실제 시험장에서는 크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올해처럼 갑자기 점수 배점이 바뀔 수도 있지만 당황하지 않고 차분히 연습했던대로 쓰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 올해 제 주변에 공부하셨던 분도 점수 배점에 맞게 글자 수를 쓰지 않으셨지만 좋은 점수를 얻으신 분이 계셨습니다.

저는 논술을 1200자에 맞춰서 서론, 결론을 200자씩 쓰고 본론을 1점 당 80자로 계산해서 썼었습니다.(2017년 논술문제에는 적용이 되지 않았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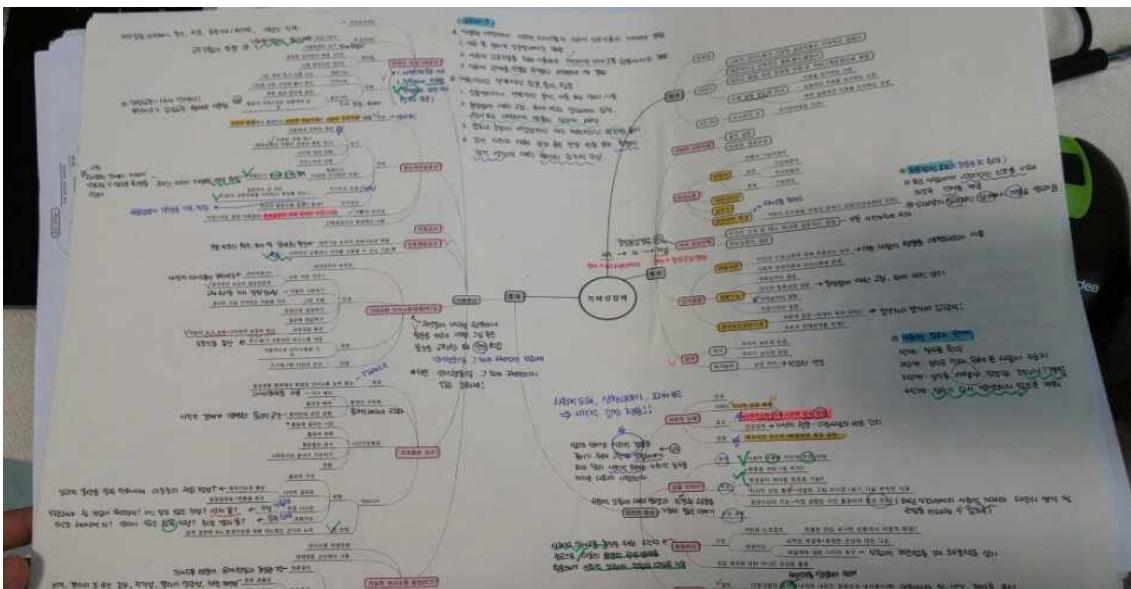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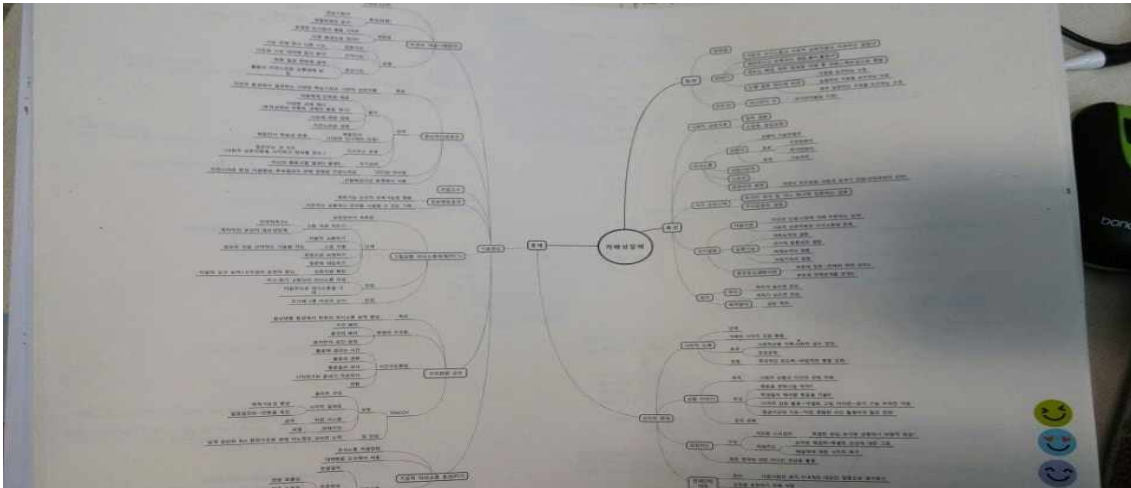
♣10월,11월

D-40. 자신과의 싸움 시작

①마인드맵을 만들었습니다.(15일 정도)

3주 정도의 시간을 잡고 영역별로 마인드맵을 만들었습니다. 이때 그전부터 조금씩 자신의 마인드맵을 그렸었던 친구들은 기본적인 틀이 있고 보충하면 되기 때문에 훨씬 쉽게 완성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전에 마인드맵을 그려봐야지 하면서도 미웠기 때문에 이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스자강사분의 마인드맵을 참고하여 저만의 마인드맵을 완성하였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큰 틀은 '알마인드'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만든 다음 세세한 부분은 손으로 써서 작성했습니다. 이 2주간은 거의 잠은 하루에 3시간 이상 잘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 3주안에 무조건 전영역 마인드맵을 완성해야하기 때문에 잠자는 시간을 쪼개면서 완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사진이 알마인드로 만든 큰 틀이고 두 번째 사진이 세세한 내용을 손으로 쓴것입니다. 이렇게 큰 틀과 손으로 쓴 세세한 마인드맵 2개를 영역당 한 세트로 만들어서 인출을 할 때는 큰 틀만 보고 세세한 내용을 인출하고 공부할 때는 손으로 쓴 세세한 마인드맵을 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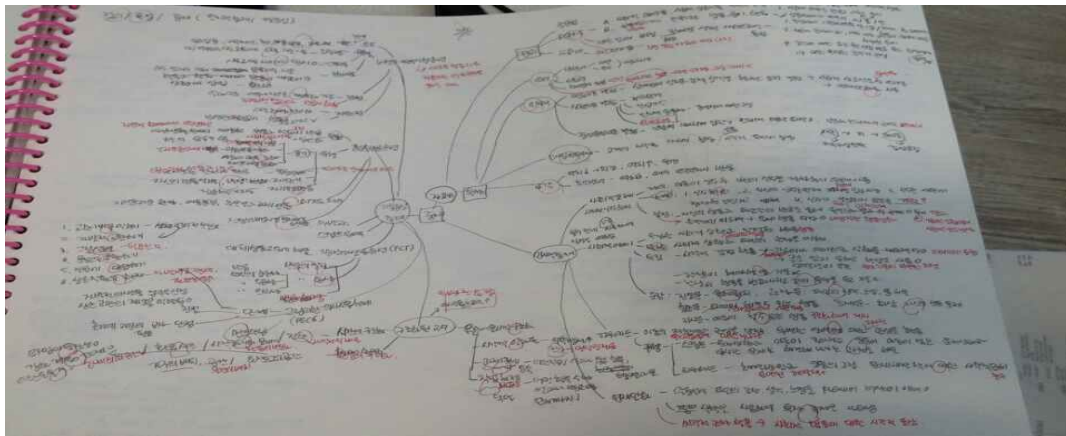


D-25

② 마인드맵을 백지에 인출하기(10일정도)

마인드맵을 만든 후 그것을 백지에 인출 하였습니다. 먼저 마인드맵을 외우고 인출하다보면 자신이 부족하거나 막히는 부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체크를 해놓고 반복해서 더 보았습니다. 처음 마인드맵을 만들 때보다 기간을 단축하여 전영역을 이 기간동안 한 바퀴 돌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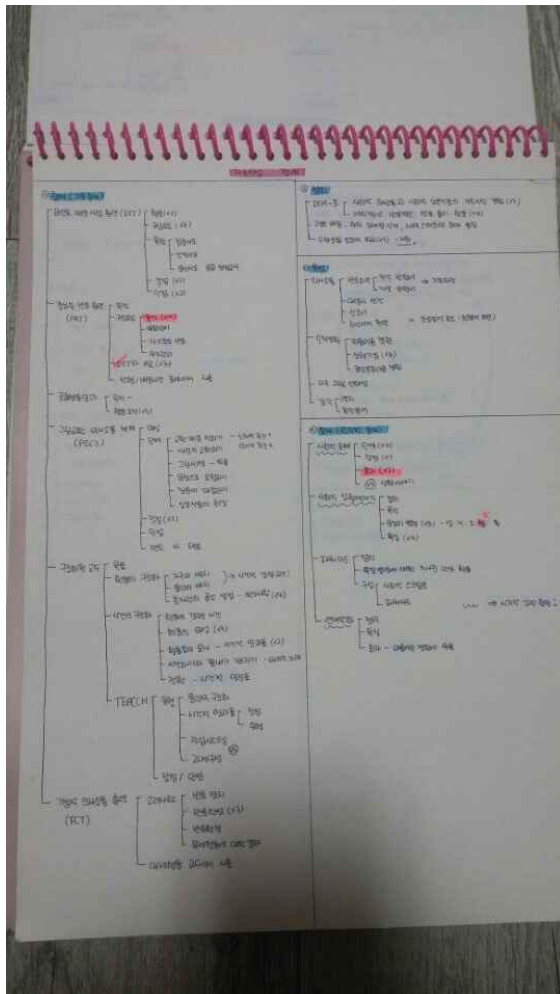
이때부터는 영역 전체를 한 바퀴씩 돌리는 기간을 점차 짧아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D-15

③ 영역별 마인드맵을 더 도식화하여 인출하기(기억서랍 만들기, 7일동안)

이때는 끊임없이 계속 인출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마인드맵보다 더욱 쉽게 머릿속에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서 마인드맵을 더욱 간단히 도식화하여 외우고자 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기억서랍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각 영역별로 큰 타이틀에 맞게 서랍을 만들고 그 안에 내용들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때 기억서랍을 만들 때는 마인드맵의 위치에 따라 기억서랍의 위치를 구조화 했습니다. 예를들면 지적장애 마인드맵에서 지적장애의 특성에 관련된 내용이 오른쪽 제일 위쪽에 있다면 기억서랍도 오른쪽 제일위는 지적장애의 특성으로 만들었습니다.



옆에 사진은 자폐성장애의 마인드맵을 도식화한 기억서랍입니다. 보시면 파란색으로 색칠된 것이 커다란 서랍이고 그안에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폐성장애는 4개의 서랍이 있는거네요, 이런식으로 장애영역마다 의사소통장애는 어떤 어떤...서랍이 몇 개, 지적장애는 어떤어떤 서랍이 몇 개..이렇게 쉽게 인출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억서랍에는 큰 내용들만 적고 세부적인 내용은 입으로 인출했습니다.

D-8

④ 기억서랍을 반복하며 계속 인출하기(4일동안)

이때는 손으로 쓸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으로 인출 했습니다. 큰 내용은 쓰고 그 뒤에 세부적인 내용은 입으로 인출하면서 하다가 막히는 부분은 기억서랍에 체크해 놓고 그 부분은 집중적으로 암기했습니다.

D-4(3일동안)

계속해서 백지에 기억서랍을 그리며 입으로 인출을 했습니다.

D-1

하루 전날에는 사실 긴장도 많이 되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책이 눈에 잘 안 들어 옵니다. 그러나 전 영역 한바퀴 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억서랍을 펴놓고 쪽 훑어보며 입으로 줄줄 인출했습니다. 안보고 백지에 하기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부담되기 때문에 이미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을 확인해본다는 식으로 보면서 인출했습니다.

◎기본교육과정 공부방법(특수교육과정)

-특수교육과정은 사실 반복해서 암기하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막연히 무조건 외우기에는 막막하기 때문에 조금 더 쉽고 효율적으로 외우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1~2월

-교육과정은 기본적으로 암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1,2월부터 외워도 후반에 다 잊어버릴 수 있다는 생각에 이때부터 공부를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3~5월

-교육과정 원문을 꼼꼼하게 읽어보았습니다. 이때는 스터디를 활용하여 공부했습니다. 총론을 위주로 공부를 하였고 교육과정 전체적인 총론은 매일 조금씩 범위를 나누어 밴드에 빈칸 문제를 올리고 거기에 답을 써서 올리는 형식으로 매일 매일 보았습니다. 과목별 총론은 일주일에 한 과목씩 정하여 공부했습니다. 스터디 진행 방식은 과목별 총론을 한 문항씩 소리내서 돌아가며 읽었습니다. 2~3바퀴정도 소리 내서 읽은 후 각자 잠깐의 암기시간을 갖고 외워서 그 문장을 말했습니다. 이렇게 소리내서 읽은 후 암기를 하게되면 더 쉽게 외워지고 스터디원들과 교육과정 전체를 꼼꼼히 읽어볼 수 있기 때문에 혼자할 때보다 밀리지 않고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만나서 스터디한 과목은 한 주간 암기를 해오고 그 다음주에 빈칸문제를 통해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6~8월

-나만의 구조화를 만들어서 암기했습니다.

한 문장을 외울 때 대키워드, 중키워드, 소키워드로 나누어서 대키워드를 중심으로 암기를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대키워드를 보면 그 문장을 떠올려서 말할 수 있도록 외웠습니다.

대 keyword	중 keyword	소 keyword
가. 거시적인 사람	직업 정체성을 획득, 자신의 진리와 삶을 개성	현명한 정신을 바탕으로
나. 중의적인 사람	대중성은 냉소와 동정심을 새로운 조형 형성	기초 철학의 바탕 위에
다. 균형 있는 사람	인격 완성을 원유하고 발전시키는	문화적 모험의 다양한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라. 더불어 사는 사람	비판적 나눔을 실천하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세계와 더불어 민주 시민으로서
가. 자기완성의 역량	자기완성으로 참여한다 있는	① 자기완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영역 안에서 ② 넓은 것도 넓게, 신중도 깊게 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에 의해)
나. 지식정보 처리 역량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체계적인 학습습득으로	특수한 기술 자질을 바탕으로
다. 창의적 사고 역량	①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여 ②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 미래의 변화 능력	넓은 이해와 가치를 발전시키고 활용하는
라. 심미적 감상 역량	① 인간에 대한 존엄적 이해와 ② 문화적 경이감을 바탕으로	다양한 상황에서의
마. 의사소통 역량	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 ②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며 존중 (new)	지역 국가 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③ 개인적 역량 ④ 사회적 역량 ⑤ 직업적 역량
바. 공동체 역량	공동체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영역별 교수학습방법 및 평가도 한번에 정리하여 공부했습니다.

* 영역별 교수학습 방법 요약 정리		평가
	교과, 학습 방법	
듣기	듣기 지도시에는 들은 내용의 의미를 파악 → 적절하게 반응, 본래의 의도와 의도를 파악하는 활동도 강조	듣기 영역의 평가목표는 들은 내용의 정확성 과 원래의 의도 를 정확 히 이해하는 능력에 중점을 두며, 듣고 난 뒤에 자신의 의견과 태도 를 표현 하고 의의 나 태도 를 대응 해 중점을 두어 설정.
말하기	말하기의 목적, 양식, 장소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언어형식으로 표현, 말하기 의 목적, 양식, 장소를 고려하여 다양한 언어형식으로 표현, 말하기 의 목적, 양식, 장소를 고려하여 다양한 언어형식으로 표현	말하기의 목적, 양식, 장소를 고려하여 다양한 언어형식으로 표현, 말하기 의 목적, 양식, 장소를 고려하여 다양한 언어형식으로 표현, 말하기 의 목적, 양식, 장소를 고려하여 다양한 언어형식으로 표현
읽기	읽기 지도시에는 읽는 목적, 양식, 장소를 고려하여 다양한 언어형식으로 표현, 읽기 의 목적, 양식, 장소를 고려하여 다양한 언어형식으로 표현, 읽기 의 목적, 양식, 장소를 고려하여 다양한 언어형식으로 표현	읽기 영역의 평가목표는 읽은 내용의 정확성 과 원래의 의도 를 정확 히 이해하는 능력에 중점을 두며, 읽고 난 뒤에 자신의 의견과 태도 를 표현 하고 의의 나 태도 를 대응 해 중점을 두어 설정.
쓰기	쓰기 지도시에는 쓰는 목적, 양식, 장소를 고려하여 다양한 언어형식으로 표현, 쓰기 의 목적, 양식, 장소를 고려하여 다양한 언어형식으로 표현, 쓰기 의 목적, 양식, 장소를 고려하여 다양한 언어형식으로 표현	쓰기 영역의 평가목표는 쓴 내용의 정확성 과 원래의 의도 를 정확 히 이해하는 능력에 중점을 두며, 쓰고 난 뒤에 자신의 의견과 태도 를 표현 하고 의의 나 태도 를 대응 해 중점을 두어 설정.

♣9월~시험전 까지

중요도에 따라 문장을 골라서 외웠습니다. 사실 교육과정 전체를 모두 외우고 들어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문장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암기를 시작했습니다. 골라서 외운다고 하여 절대 적은양은 아니며 이것만은 꼭 완벽하게 통문장으로 외우고 들어간다는 마음으로 공부하면 오히려 부담감도 줄어들고 자심감도 생겼습니다. 제가 매긴 중요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과정 전체에 대한 총론**(이건 정말 백지에 처음부터 끝까지 줄줄 쓸 수 있을 정도로 외웠습니다. 시험보기 한달전부터는 거의 매일 처음부터 끝까지를 백지에 쓰면서 외웠습니다.)
2. **공통 국어, 공통 체육**-시험 출제 1순위인 과목입니다. 다른 과목은 못보더라도 공통 국어와 공통 체육은 꼭 보셔야 합니다. 최근에는 공통 영어에서도 문제가 나오는 추세입니다.
3. **기출문장**- 기출된 문장도 다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출문장은 체크해 놓고 기본적으로 모두 암기해야 합니다.
4. **각 과목에 중도중복에 관련된 내용**-장애영역과 관련하여 시험 문제로 나오기 좋습니다.
5. **영역별 교수학습방법**-각 과목마다 영역별 교수학습 방법이 있습니다. 각 과목의 특성이 뚜렷한 문장이므로 출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와 같이 교육과정 문장을 뽑아보면 생각보다 양이 많이 줄어서 부담감이 줄어들게 됩니다.

시험 2주전부터는 위에서 뽑은 내용들을 매일매일 전체를 다 보았습니다. 교육과정은 무엇보다 반복해서 완벽하게 외우는 것이 중요하므로 적은 양은 아니지만 매일 보도록 해야합니다.

◎합격수기를 마치며

임용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붙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저는 학부 때 특별히 성적이 좋았던 것도 아니고 임용에 크게 뜻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공부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을 때부터는 나는 붙을 수 있다는 자신감과 조금씩이라도 **매일 꾸준히** 공부했다는 것이 저를 합격으로 이끌었던 이유인 것 같습니다. 공부

를 하다보면 주변사람들이 신경 쓰일 때가 많습니다. 수험생에게 가장 조심해야할 것이 주변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재는 벌써 기출을 끝냈는데, 재는 서브노트를 만들었는데..'이렇게 남들을 의식하는 순간 자신만 더 불안해지고 불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제 주변에서 '정말 괴물처럼 공부한다.', '저 사람은 꼭 붙을거야'하는 사람들은 모두 떨어졌습니다. 주변을 의식하지 말고 자신의 페이스대로 차근차근 나아가는 것이 합격으로 빨리 가는 지름길입니다.

혹시 아직 마음을 잡지 못하거나 공부를 하고 있지만 붙을까 하는 마음이 있다면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4월인 지금부터시작해도 정말 충분합니다. 지금부터 성실하게 꾸준히 공부하고, 마지막 시험 전 두 달을 내 인생에서 이렇게 치열하게 살 수 없다 싶을정도로 보낸다면 정말 합격할 수 있습니다. 진짜 공부는 마지막 50일 안에서 판결나는 것입니다.(물론 앞에서 꾸준히 성실하게 해왔다는 전제하입니다.) 이제 늦었다고 생각 하지말고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합격을 위해 항상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